

경제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노조 파업 결의

조합원 투표 82% 찬성 가결...경영정상화 차질 우려

워크아웃(기업개선행위) 중인 금호타이어의 노조가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시기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경영실적 개선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금호타이어의 경영정상화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4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금호노조 금호타이어지회(노조)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광주·곡성·광덕 공장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재직 조합원의 82.8% 찬성투표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3311명 가운데 2966명이 참여해 2741명이 찬성했다. 반대(기권·무효 포함)는

570명이었다.

노사는 최근까지 실무교섭을 포함해 모두 23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두차례 조정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5일 쟁의대책위원회와 비상확대간담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와 조합원 행동지침 등 앞으로의 투쟁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임금 13% 인상 ▲워크아웃 기간동안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5%)·상여급(200%) 회복 ▲성과급 지급 ▲해고자 원직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인 가결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

보했다”며 “회사측에 이번 주까지 기회를 주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으면 다음주부터 전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채권단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2009년부터 3년간 임금에 동결되고 복지가 중단됐지만 인내하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일해왔다”며 “조합원들의 희생을 회사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노조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 퇴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워크아웃 개시 당시 합의했던 2010년 임·단협(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상여급 200% 반납, 생산성 향상 등) 준수, 노

사등의서 및 특별합의서의 성실한 이행 등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노조는 워크아웃이 마무리될 때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고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워크아웃을 좀 더 빨리 졸업하면 임금 회복과 복지 향상은 앞당겨져 된다”고 노사협력력을 강조했다.

한편, 금호타이어가 올해 1분기 매출은 1조55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83억원으로 61.0%, 당기순이익은 86억원으로 226.7% 증가했다. 또 지난해 113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박삼구 그룹 회장이 오히려 복귀하는 등 경영체제도 안정을 찾았다.

이 같은 경영 개선에 따라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내년 상반기 중 워크아웃을 졸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복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삼성전자 900리터 냉장고 출시

삼성전자가 900리터의 대용량을 갖춘 새로운 타입의 냉장고 '지벨 T 9000'을 출시했다.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사에서 모델들이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쇼핑 광주 입점 더는 안된다”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할인점 진출 중지 촉구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잇따라 광주에 입점을 추진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지역중소상인들이 롯데쇼핑측에 추가 출점을 포기할 것을 공식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집행위원장 김용재) 등 광주지역시민단체들은 4일 롯데마트 광주점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점포 추가출점 중단선언’을 촉구했다.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올해 초 북구 첨단 2지구 신용동에 대형 할인점을 짓기로 하고 부지 8500여㎡를 사들이고 지난 2월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구는 전반적인 건축계획과 교통처리계획 부실 등을 이유로 2차례 심의를 반려(지난 20일 허가신청서 반려)했다.

이들 단체는 “재벌 대기업 롯데가 첨단2지구에 창고형 할인점인 ‘VIC마켓’ 입점을 시도해 지역유통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며 “상인들이 심의장 침묵시위 등을 통해 입점반대를 표시해왔음에도 롯데가 광주 상권을 송두리째 손아귀에 넣으려 한 행위를 정기로 하고 부지 8500여㎡를 사들이고 지난 2월 건축계획

주 전역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도심에 전방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롯데백화점, 대형마트, SSM, 아울렛 등 광주지역 유통대기업 운영점포의 60%를 롯데가 차지하고 있다”며 “더는 광주가 ‘롯데 왕국’이라는 불명예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2년 현재 인구 140만 명의 광주에 들어선 롯데의 유통전문점은 총 19곳이다. 상인들은 롯데가 최소한의 기업윤리가 있다면 창고형 할인점 진출을 당장 중지하고 지역사회에 상생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테일 막걸리 등 출시 수출품목 다변화 하이트진로 日시장 공략 나선다



요구르트막걸리 망고막걸리

하이트진로(대표 이남수)가 수출품목 다변화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하이트진로는 카테일 막걸리, 검은콩 막걸리, 무알콜 맥주 등 다양한 품목을 개발해 일본 시장에 출시했으며 7월부터 드라이타입 맥주 판매를 시작했다.

지난 1일부터 일본 대형마트에서 판매에 들어간 드라이타입 맥주 ‘드라이비어(DRY BEER)’는 일본 레귤러맥주 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이타입 맥주로 알코올 도수 5도에 맥남김이 부드러운 면에서 뒷맛이 상쾌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발포주, 제3맥주를 수출했던 하이트진로는 드라이타입 맥주를 출시함으로써 유럽, 미국산 맥주조차 진입이 어려웠던 일본 맥주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 지난해 일본에 ‘라거비어’를 출시해 세계적 권위의 식품품평회인 몽드셀렉션에서 맥주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등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또 카테일 캔 막걸리도 일본에 출시했다. 카테일 캔 막걸리는 시음테스트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요구르트와 망고 두 가지 맛으로 출시했다. 이는 RTD(마로마실 수 있도록 포장된 음료)시장 증가에 따른 주류시장의 저알코올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막걸리에 과즙 등을 첨가해 여성층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최대 수출을 달성한 하이트진로는 지난 5월까지 5446만 달러, 전년 대비 6.3% 성장률을 보이며 최대 실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분기 가계 신용위험 9년만에 최고치

올해 3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이 9년만에 가장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6월 11~21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6개 국내은행을 조사해 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조사(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에상치)는 38로 2분기 22에서 경증 올랐다. 이는 2003년 3분기(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은행이 평가하는 가계의 신용이 지난 9년간 이렇게 위험했던 적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미국발 금융위기 때(25·2009년 2분기)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연합뉴스

원인은 가계부채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911조원이다.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치면 1000조원을 넘는다. 그러나 가계 소득조건이 나빠지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담보로 걸어놓은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해도 침체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어렵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 3년 반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2분기 31에서 3분기 44로 뛰며 2009년 1분기(47) 이후 최대치였다. /연합뉴스

光銀 ‘더블찬스 정기예금 66호’ 판매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KOSPI200지수에 연계한 ‘더블찬스 정기예금 66호’를 한시 판매한다.

이 상품은 1년제 정기예금으로 KOSPI200지수의 상승률에 따라 원금은 보장되면서 최고 연 15.2%를 제공하는 형태와 KOSPI200지수의 하락률에 따라 원금보장 및 최고 연 8.4%를 제공하는 양방향형 수익률 구조로 되어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또한 기준지수결정일 익일부터 만기까지 수결정일까지 기준지수가 장중 1회라도 20% 초과 상승하는 경우 연 3.5%로, 20% 초과 하락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익없이 원금보장으로 수익이 확정되는 너-아웃(Knock-out)형에 금상첨가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생계형 저축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카드 수수료율 인하...214만 가맹점 혜택

35년만에 요율체계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돼 214만 가맹점이 연간 9000억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본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의 효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진다. 인하 혜택을 보는 곳은 전체 224만 가맹점의

96%인 214만 곳이다.

연매출이 2억원을 밑돌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8%에서 1.3%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이런 가맹점은 152만개다.

연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1만7000개 가맹점(전체의 1%)은 반대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다. 나머지 5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수수료율 적용 체계도 바뀐다. 1978년 업종별 요율 체계가 도입된 지 35년 만이다. 금융위는 같은 업종에 매출액이 비슷해도 수수료율이 천차만별이던 관행을 없애려고 카드사가 요율을 책

정할 때 객관적 자료와 합당한 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 1,874.45 (+6.63)
코스닥지수	▲ 495.81 (+1.90)
금리(국고채 3년)	▼ 3.28% (-0.01)
원·달러 환율	▼ 1,135.80원 (-2.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친환경 2012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끊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시스템이 적용된 주택의 특징

태양광시스템으로 발전된 전력은 주택전기에 사용되고 남는 전기는 한전으로 역전송 됩니다. 역전송시에 한전계량기를 거꾸로 돌림으로서 전기를 약 80~90% 절약시켜 줍니다. 비가오거나 흐린 날에도 태양광은 소수전력이 생산되지만 발전량이 사용량보다 적으면 자동으로 한전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 ◆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가정집
- ◆ 누진요금이 걱정인 곳
- ◆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다
- ◆ 설치시 전기요금 효율 80% 절감

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300~350KW의 전력이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이 늘수록 전기요금을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신청안내

신청하신 후 태양광 센터입니다. 해마다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설치를 못하고 지연하신 주택이나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은 전화 주시면 태양광 전문가가 직접 전화후 방문상담하여 입주일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전기요금(사용전량) kWh/월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 요금
8만원 (약 415kWh)일 때	약 1,800원	약 78,200원
10만원 (약 460kWh)일 때	약 5,600원	약 94,400원
12만원 (약 500kWh)일 때	약 8,900원	약 11,100원
15만원 (약 540kWh)일 때	약 16,500원	약 133,500원
20만원 (약 610kWh)일 때	약 30,600원	약 169,400원
25만원 (약 680kWh)일 때	약 48,000원	약 202,000원
30만원 (약 740kWh)일 때	약 72,000원	약 228,000원

※가상 여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신재생 태양광 주택 보급 센터 (주)동성에너지

☎062-512-1180 / H.P 011-659-7001